

한국 명리학(命理學)의 메타분석학적 고찰

연구동향 분석을 위한
개별논문의 심층분석을 중심으로

황금옥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한국문화학과 동양문화 전공
oe10@hanmail.net

- I. 머리말
- II. 메타분석에 의한 명리학 연구성과의 수치적 해석
- III. 심층분석에 의한 한국 명리학의 연구동향
- IV. 맺음말

I.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배움은 지혜의 근원이며, 행복한 삶을 위한 지혜는 나를 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¹⁾ 명리학(命理學)은 바로 나를 알고자 하는 문제와 연관된 학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의문에 관해서 고대 중국인(中國人)들은 우주와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관찰하여 인간의 화복(禍福)을 예측하였다. 이들은 하늘이 인간을 낳고 인간이 하늘로부터 받은 명(命)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인식하였다.²⁾

명리학은 사주팔자 간지(干支)의 음양오행(陰陽五行)이 상생(相生), 상극(相剋)하는 원리를 바탕으로 부귀(富貴), 빈천(貧賤), 수묘(壽夭) 등을 예측하고 해석한다. 명리학에는 인간의 명에 대한 심오하고 폭넓은 철학적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명리학은 음양오행론³⁾을 그 논리전개의 이론적 근거로 삼는 독자적인 체계를 갖춘 학문이다. 명리학의 이론적 근거인 명리서로는 중국의 3대 명리서를 손꼽는데, 서대승(徐大升)⁴⁾의 『연해자평(淵海子平)』, 유백온(劉伯溫)⁵⁾의 『적천수(適天髓)』와 심효침

1) 『成公』에 “사람은 천지의 도를 받아서 태어났으니 이것이 명이다(民受天地之中以生所謂命也)”라고 하여 사람은 하늘에 의하여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라고 하였으며, 『中庸』에는 “하늘이 명한 것이 성이다(天命之謂性)”라고 한 것은 하늘로부터 받은 명(命)은 인간의 본질(性)임을 인식하는 대목이다. 이시운, 『劉伯溫 命理思想의 哲學的 照明』,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4), 1쪽.

2) 고영택, 『중국 三大 命理書에 나타난 ‘命’과 ‘인간존재’에 대한 철학적 照明』,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0), 2-3쪽.

3) 이는 음양오행의 작용을 우주의 원리로 인식하며 대우주로서의 우주와 소우주로서의 인간 사이의 상관관계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며, 따라서 명리학은 우주만물의 법칙과 원리를 규명하여 이것을 인간에 대입하면서 人文學史의 전통을 이어왔다.

4) 서대승(徐大升, 1200년대), 남송(南宋) 때의 인물.

5) 유기(劉基, 1310-1375)는 원대 말(元代末)에서 명초(明初) 인물로서 자(字)는 백온(伯溫), 시호는 문성(文成)이라 한다. 명나라 개국공신으로 경사(經史)와 술수(術數), 그리고 천문, 기상, 역법, 군사 등의 각 분야에 정통하였다. 명(明)나라 건국 후 어시중승(御史中丞)과 태사령(太史令) 등의 관직을 맡아 역법(曆法) 제정과 군정체제 건립에 공헌하였다. 1370년(明 洪武 3)에 성의백(誠意伯)에 봉(封)해졌으나 다음 해에 벼슬을 사임(辭任)하고 개국공신(開國功臣)으로서의 자신의 공훈(功勳)을 자랑하지 않고 깊이 스스로를 숨기었다. 명(明)나라 건국 초에 무신대통력(戊申大統曆)을 지었다. 저서로 『誠意伯文集』, 『犁離子』, 『窮情集』, 『犁眉公集』, 『春秋明經』 등이 있다.

(沈孝瞻)의 『자평진전(子平眞詮)』을 말한다.⁶⁾

중국의 명리학이 어느 시기에 어떤 과정을 통해 한국에 전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조선시대에는 유학자들⁷⁾에 의해 명리학이 연구되었다. 그러나 몇몇 저서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학문적 성과 없이 술수⁸⁾로서만 명맥이 이어져왔다. 이러한 명리학은 2000년대 들어서 국내 일부 대학에서 명리학을 전공과목으로 하는 학과⁹⁾가 개설되면서 비로소 고유의 학문적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후 약 20년의 시간이 경과한 현 상황에서 학문으로서의 명리학 연구의 진전 상황과 학문적인 연구는 어떤 연구동향을 보이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시점에 이르렀다.

특정 분야의 학문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구주제의 다양화와 더불어 연구방법론의 확대적용이 필요하다.¹⁰⁾ 다시 말해 명리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그간의 연구성과를 종합분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명리학의 연구성과를 메타분석(Meta-Analysis)학적 방법으로 검토하여 그간의 연구가 어떤 함의(含意)를 담고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메타분석법은 글래스(G. Glass)¹¹⁾가 최초로 명명한 문헌분석방법으로

-
- 6) 송대(宋代)에서 청대(清代)에 이르는 기간 동안 여러 저명한 명리학자들이 보서(寶書)라고 거론하는 명리서(命理書)는 송대(宋代)의 『연해자평(淵海子平)』, 명대(明代)의 『적천수(滴天髓)』, 『명리정종(命理正宗)』, 『삼명통회(三命通會)』, 그리고 청대(清代)의 『명리약언(命理約言)』, 『자평진전(子平眞詮)』, 『궁통보감(窮通寶鑑)』 등이 있다. 이시윤, 앞의 논문, 67-69쪽.
 - 7) 『成宗實錄』, 成宗 19年 12月 24日(癸丑). “戊寅, [...] 一日, 世祖 從容謂居正曰: ‘祿命書亦儒者窮理之事, 卿爲作假令以進.’ 於時著五行摠括.” 하루는 세조가 서거정에게 이르기를 “祿命書도 儒者가 窮理하는 일이니 경이 假命을 지어서 올리라” 하니 이때에 『五行總括』을 지었다 하고, 또 정조(1777-1800)는 『協吉通義』를 편찬하도록 명을 내린다(구현식, 『『協吉通義』의 命理·風水原理 研究』,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이는 국가의 지배층이 유학자들에게 명리서를 연구 편찬하도록 한 사례인데, 그 이유는 그 당시 명리서가 중국 문헌이기 때문에 환문에 능한 유학자들이 연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 8) 이러한 이론적 부분과 술수적 부분을 김만태는 체(體)와 용(用)이라 하였다. 즉 이론으로서의 명리학은 체이고, 술수로서의 명리학은 용이라 하였다. 김만태, 「역서(曆書)류를 통해 본 택일문화의 변화」, 『민속학연구』 제20권(국립민속박물관, 2007), 13쪽.
 - 9) 원광대학교에서 1998년 교학대학원을 동양학대학원으로 개칭하고 원불교학과, 불교학과, 동양학과로 개편하였는데, 동양학과에는 기공학 전공과 동양철학 전공 과정을 개설하였다. 이중 동양철학 전공에서 명리학 전공자들을 배출하기 시작하였다. 동방대학원대학교에서는 2006년에 미래예측학과를 개설하여 명리학 전공자들을 배출하기 시작하였다.
 - 10) 김용겸, 「우리나라의 경영학 관련 주요학회지에 게재된 메타분석 연구현황」, 『대한경영학회지』 제23권 제4호(2010), 1833-1858쪽.

과거의 주관적·정성적 성격의 전통적 문헌연구와 달리 기존 실증적 경험연구 결과들을 정량적 방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조명할 수 있게 해주는 통합적 분석기법이다. 또한 특정 연구분야의 일반화된 지식을 체계화하기 위해 개별적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는 접근방법이다.¹²⁾

이처럼 메타분석은 특정 학문분야의 전체 연구특성 또는 시대별 연구동향, 또는 선택된 개념이나 변수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기에 적합한 분석기법으로서 의학¹³⁾, 교육학¹⁴⁾, 심리학¹⁵⁾을 필두로 사회학¹⁶⁾, 정치경제학¹⁷⁾, 신문방송학¹⁸⁾, 인문학¹⁹⁾ 등 학문의 전 분야에 걸쳐 두루 활용되어왔다.²⁰⁾

이 글의 목적은 최근 학문으로서 기틀을 잡기 시작하는 국내 명리학의 연구성공을 메타분석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그간의 연구동향과 성과를 과학적인 입장에서 조망하고 각각의 연구성과²¹⁾와 함의(含意)를 추적하

11) Gene V. Glass, "Primary, Secondary, and Meta: Analysis of Research," *Educational Researcher*, Vol. 5, No. 10(CA: Sage publications, 1976), pp. 3-8.

12) 김용겸, 앞의 논문, 1833-1858쪽.

13) 소은선·이인숙, 「고혈압 간호중재의 혈압하강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동서간호학연구지』 제16권 제1호(2011) 11-18쪽.

14) 김정환, 「메타인지·자기 효능감 및 실제적 지능과 성취도 간 인과관계의 경험적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7권 제2호(2007), 73-94쪽.

15) 이성용·김진호, 「자기교시 중재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특수교육학연구』 제46권 제3호(2011), 163-189쪽.

16) 송영신·강문희·김선애, 「노인관련 메타분석 연구의 방법론적 질평가: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8권 제4호(2014), 349-369쪽.

17) 이성우, 「정책분석의 패러다임과 연구방법에 대한 메타적 접근」, 『정책평가분석학회보』 제14권 3호(2004), 1-22쪽.

18) 이영희·황상재, 「장애인 관련 방송연구의 메타분석」, 『시각장애연구』 제29권 제4호(2013), 47-75쪽.

19) 이경남, 「전자기록의 장기적 보존을 위한 보존메타데이터 요소 분석」, 『기록학연구』 제14권(2006), 191-240쪽.

20) 2016년 11월 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메타분석'이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한국어로 된 자료로 학위논문 5,175건, 학술지 논문 4,061건이 검색된다. 이렇게 메타분석이 전 학문 영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논의되는 것은 타 분석기법에 비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고 특별한 실험실이나 다수의 인원이 불필요하며,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자료를 분석할 수 있고 미래연구 설계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경향에 대한 규칙성을 밝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노정순,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메타분석연구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권 제1호(2008); 황상재·박석철, 「국내인터넷연구의 메타분석: 연구주제와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18권 제2호(2004), 68-92쪽; A. P. Field, "Meta-analysis of correlation coefficients: A Monte Carlo comparison of fixed and random effects methods," *Psychological Methods*, Vol. 6, No. 2(2001), pp. 161-180.

21) 우리나라에서 명리학이 학술연구의 대상이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학술적인

여 미래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다.

2. 연구의 범위

명리학의 연원에 대하여 여러 학설이 있지만 전국시대의 제자백가 중 추연(鄒衍)²²⁾을 비조(鼻祖)로 하는 음양가(陰陽家)가 명리학의 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명리학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3대 명리서에는 당대(當代)의 대학자들의 사상²³⁾, 특히 유가사상의 영향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²⁴⁾ 그러므로 명리학은 유가사상의 기반 위에 점서(占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⁵⁾

한대(漢代)에 나타난 음양오행론(陰陽五行論)의 체계화와 천문학(天文學)·역법(曆法)의 발달은 명리학의 탄생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한대(漢代)는 천문학(天文學)뿐만 아니라 의학(醫學)·농학(農學)·산학(算學) 등 중국 전통과학을 대표하는 전문분야들이 형성된 시기로서 중국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 갖추어지는 시기였다. 이 중 음양오행론은 중국 상고시

연구로서 명리학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백영관의 『사주정설』(1963)과 임동권의 『삼국시대의 무·점속』(1967)이며 이후 이루어진 몇 건의 연구실적 등 민속학적인 관심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명리학의 본질적인 사상연구라기보다는 풍습 등에 관한 관심에서 출발한 것이었을 뿐 진정한 명리학 본연의 모습은 아니었다. 이후 1990년대에는 고전문학작품을 통해서 점복으로서 명리학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비로소 명리학에 대한 본격적인 이론연구와 술수를 명리학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난다.

- 22) 鄒衍(기원전 305?-240?), 전국시대 제자백가 중 陰陽家の 사상가. 齊나라 출신으로 齊나라의 稷下에서 활동했으며 『鄒子終始』 등의 저서가 있었다. 그는 본래 각기 다른 환경에서 형성된 음양설과 오행설을 통합하여 체계적인 陰陽五行說을 정립했으며 왕조의 교체를 五行의 相勝을 통해 설명하는 五德終始說로 유명하다. 추연의 오덕종시설은 天人相應이라는 중국고대의 오랜 관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朴正潤, 「陰陽五行說의 성립과 그 理論的 배경」,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1); 풍우란 저, 박성규 역, 『중국철학사상』(까치글방, 2004).
- 23) 洪丕謨·姜玉珍 編著, 『中國古代算命術』(上海三聯書店, 2006). “그 당시 산명하는 일은 명리학자들이 아니라 유학에 능통한 사람들이 담당하였으며, 그들 대다수가 명리에 정통하였다. 남송시대의 저명한 성리학자인 주희의 친구 서단속도 학자로서 명리에 정통한 사람이다(算命不僅是命理學家的事, 就是通儒學者, 也大多精通命理. 如南宋著名理學家朱熹的老朋友徐端淑, 就是一位讀書又精通命理的人).” 이로 미루어볼 때 명리학은 유학자들에 의하여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다.
- 24) 徐升 編, 『淵海子平』(瑞成書局, 1995), 「評註淵海子平引」. “作淵海之書, 集諸儒之義傳布至今, 悉皆宗之.”; 沈孝瞻 著, 『子平眞詮』(瑞成書局, 1995), 「序」. “聖人罕言命 魯論終篇 又揭出數命二字 蓋恐人不畏天命, 又恐人不知天命也.”
- 25) 고영택, 앞의 논문, 8쪽.

대의 황제(黃帝) 때 이미 그 체계가 잡히기 시작하여²⁶⁾, 동중서의 저서인 『춘추번로(春秋繁露)』에서 그 체계가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²⁷⁾ 이후 소길(蕭吉)이 『오행대의(五行大義)』를 편찬하여 명리학 이론의 기본 개념 들은 수나라 때에 이미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명리학이 우리나라에 어느 시기에 어떤 과정으로 전파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중국과 우리나라 간에 문화적(文化的)·인적(人的) 교류(交流)가 지속적으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시기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당시 중국과 왕래했던 지식인과 관료계층 등을 통해서 사주명리학이 우리나라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전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²⁸⁾

1458년 조선 세조 때 서거정(徐居正)이 저술한 『오행총괄(五行摠括)』은 사주(四柱)를 토대로 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주명리서로 추정된다. 『오행총괄』은 당시 우리나라 사주명리학의 이론과 사람들의 인식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문헌이다.²⁹⁾ 그러나 아쉽게도 『오행총괄』은 전하지 않는다. 『협길통의(協吉通義)』³⁰⁾는 조선 후기 정조(正祖)의 명으로 중국의 명리서인 『협기변방서(協紀辨方書)』와 『상길통서(象吉通書)』를 참조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총 22권의 술수지침서로서 편찬된 책이다.

그러나 그 이후 구한말까지 우리나라의 명리학은 국가나 왕실의 길일(吉日)을 가리는 추길(諏吉)을 주로 하는 관학(官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중국과 달리 주자학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명리학에 대한 학문적 논의와 성과는 극히 미미하였다. 이후 구한말, 일제강점기, 광복 등 근대화 과정에서 명리학은 미신과 술수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명리학의 실체가 상당히 왜곡된 모습으로 비춰진

26) 黃帝 때에 星曆을 考定하고 五行을 建立하며 消息을 일으켰다(蓋黃帝考定星曆 建立五行. 起消息)는 『史記』 「曆書」의 기록을 근거로 沈揆喆은 황제 때에 陰陽五行의 체계가 잡히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27) 沈揆喆, 『命理學의 淵源과 理論體系에 관한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2003), 163쪽.

28) 김만태, 「命理學의 韓國의 受容 및 展開過程에 관한 研究」,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4), 87-105쪽.

29) 『成宗實錄』, 成宗 19年 12月 24日(癸丑). “戊寅年(1458) [...] 하루는 세조가 조용히 서거정에게 이르기를 ‘祿命書도 儒者가 窮理하는 일이니 경이 假令을 지어서 올리라’ 하니 이때에 『五行總括』을 지었다(戊寅, [...] 一日, 世祖 從容謂居正曰: ‘祿命書亦儒者窮理之事, 卿爲作假令以進.’ 於時著五行摠括).” 그러나 아쉽게도 이 책은 전하지 않고, 서거정의 문집에 서문 등이 소개되어 있다.

30) 구현식, 『『協吉通義』의 命理·風水原理 研究』,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3).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명리학이 국내에 유입된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세조 때의 『오행 총괄』과 『협길통의』를 제외하고는 700여 년간이나 사주명리서가 저술된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명리학의 학문적 암흑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근대 학술적인 면에서 명리학과 관련하여 최초로 등장한 문헌을 백영관의 『사주정설』(1963)이며, 학술문헌으로는 임동권의 『삼국시대의 무·점속』³¹⁾(1967)이 있다. 이어 신육천의 『사주감정법비결집(四柱鑑定法秘訣集)』³²⁾(1965), 이석영의 『사주첩경(四柱捷徑)』(1969) 6권의 발간 등으로 한국의 명리학은 새로운 길³³⁾에 접어들기 시작하였다.³⁴⁾ 이후 임동권은 「고려시대의 점복속」(1969)³⁵⁾에서 고려시대 점복 종류를 밝혔으며, 신종원(1980)³⁶⁾은 일관은 점성을 담당하는 천문가로서 사면에서 분화되어 나온 것이라 하였다. 김영진은 「관수고」(1983)³⁷⁾에서 점치는 맹인인 관수에 대한 역사적 개관과 그 어원 등을 다루었다. 이처럼 국내 명리학 연구의 시초는 민속학에서 출발하였는데 이 당시 우리나라의 명리학 연구는 명리학의 본질적인 사상과 근원에 대한 문제보다는 민족의 고유한 민속적인 풍습이라는 관심과 술수의 측면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이후 민속학적 관심과 연구³⁸⁾는 민속박물관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문학 쪽에서도 고전문학작품을 이해하려는 차원에서 민족문화인 점복을 연구 검토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김광진의 「점복설화의 서사적 수용양상」(1993), 김재환의 「「두견접」의 민속적 고찰」(1996)³⁹⁾ 등이 있다. 또한 종교적 입장에서 무속신앙으로서

31) 임동권, 「삼국시대의 무점속」, 『백산학보』 제3권(1967).

32) 1963년에 일본 명리학자 아베 다이잔(阿部泰山)이 만세력 1권, 자미두수 2권, 육입 7권, 사주명리 13권으로 된 총 22권의 명리전집을 발간하였는데, 신육천이 이를 번역하고 축약정리하여 1965년 『사주감정법비결집』을 출간하였다.

33) 조용현, 『조용현의 사주명리학이야기』(RHK Korea출판, 2010).

34) 1919년 朴健會의 『四柱吉凶自解法』과 1956년 申泰三의 『四柱卜筮觀相法』이 발간되었으나 정통명리서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卜筮書에 가깝다.

35) 임동권, 「고려시대의 점복속」, 『이홍직박사 회갑기념 한국사학논총』(신구문화사, 1969).

36) 신종원, 「고대일관의 성격」, 『한국민속학』 제12권(1980).

37) 김영진, 「관수고」, 『최정여박사 송수기념 민속어학 논총』(계명대학교출판부, 1983).

38) 김창진, 『점복의 의미와 기능, 한국의 점복』(지식산업사, 1995); 이기태, 「점복촌의 역사적 실태 연구」, 『한국무속학』 제13권(2006); 표인주, 『민속현상에 나타난 복의 실상과 의미』(남도민속문화원, 2002).

명리학을 연구한 논문⁴⁰⁾도 다수 있다.

이처럼 명리학은 1990년대 이후에는 여러 학문분야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어서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학문으로서 명리학을 다루게 되면서 명리학 사상과 근원에 대한 학문적 성과를 집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⁴¹⁾ 따라서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한국 명리학의 연구동향을 검토하고자 하며 이를 본 연구의 연구범위로 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이 글에서의 연구방법을 그림1에 나타내었다.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글의 핵심은 1차분석과 2차분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자료수집과 Excel 프로그램이다.

자료수집은 2016년 11월을 기준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⁴²⁾(riss.kr)에서 “명리”라는 키워드로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저서 등을 망라하여 검색된 문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검색결과는 표1과 같다.

표1에서 검색된 총 1,886건의 문헌 중에서 내용이 맞지 않는 건과 중복된 건 등을 제외한 총 1,083건의 자료를 이 글의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월리스(W. I. Wallace)⁴³⁾는 메타분석을 종합적 메타분석과 분석적 메타분석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종합적 메타분석이란 선택된 특정 연구분야의 연구동향을 알아보는 방법이며, 분석적 메타분석이란 선택된

39) 김재환, 「「두껍진」의 민속학적 고찰」, 『새얼어문논집』 제9권(1996); 경일남, 「고전소설에 나타난 점복자의 양상과 기능」, 『수행인문학』 제30권 제2호(2003); 김광진, 「점복설화의 서사적 수용양상」, 『청람어문교육』 제10권(1993); 박용식, 「복술설화고」, 『건국어문학』 제9권(1985).

40) 김홍철, 「한국점복신앙에 관한 연구」, 『한국종교사연구』 제3권(1995); 황선명, 「운세와 운명관의 시대적 추이: 비결과 예언의 현대적 의의」, 『신종교연구』 제6권(2002).

41) 많은 명리학자들이 원광대학교에 명리를 전문영역으로 하는 학과가 개설된 데 대하여 높게 평가하였다. 김만태, 앞의 논문(2007), 35-40쪽.

42) 이 글을 위하여 국회도서관 등의 자료를 검색하였지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자료와 완전히 중복된 자료였다.

43) W. I. Wallace, “Metatheory, Conceptual Standardization, and the Future of Sociology,” In G. Ritzer(Ed.), *Metatheorizing*(New York: Sage, 1992) pp. 53-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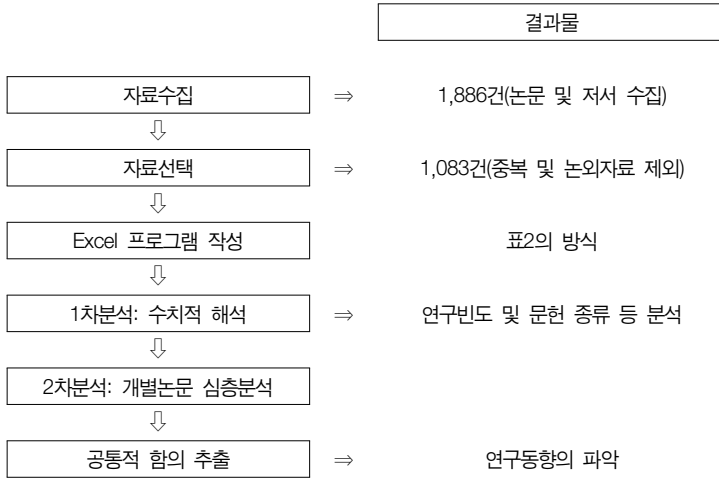


그림1-연구방법

표1-연구대상 검색결과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저서	계
	석사	박사			
최초 자료	221	79	230	1,356	1,886
연구대상 논문	167	48	67	801	1,083

개념이나 수치적 변인들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를 통합적으로 살피는 방법으로 이 글에서의 메타분석은 종합적 메타분석⁴⁴⁾에 따른다.

연구대상 자료는 표2와 같은 Excel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이 자료를 토대로 1차분석인 수치적 해석을 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번호는 총 자료 권수를 말하는 것이며, 저자, 연구제목, 논문 종류(학위논문 혹은 학술지논문, 저서), 발행지, 연구분야, 발행연도 등으로 구분하여 나타나는 현상들을 분석 고찰하여 유의미한 결과들을 얻었다. 또한 서지학적 분석⁴⁵⁾으로 명리학 분야 연구의 기초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44) 통계적 수치를 기대할 수 없는 사회과학에서는 이러한 연구방법으로 연구동향과 연구 성과를 심층분석한다. 노정순, 앞의 논문, 45-61쪽.

45) 책을 연구 및 조사대상으로 하여 과학적으로 분석, 연구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자의 수단으로 표현된 책의 원본 또는 정본(正本)의 본문이 어떤 것인가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연구방법이다. 둘째, 문자의 수단으로 표현된 지적 소산의 내용 중 주제가 같은 것이 얼마나 있고, 그중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의

표2-명리학 연구 메타분석을 위한 자료추출

번호	저자	제목	문헌 종류 ¹⁾	발행지 ²⁾	연구분야 ³⁾	발행연도	비고

- *1. 석사학위논문 1, 박사학위논문 2, 학술지논문 3, 저서 4
- *2. 논문의 경우는 발행지 권(호), 쪽수, 저서의 경우는 발행처: 발행지로 구분, 학위논문의 경우는 소속을 명기함.
- *3. 논문분야 A, 명리학사상이나 이론분야 B, 명리학 활용 혹은 술수분야 C, 타 분야와 명리학 결합

2차분석에서는 개별 단위논문을 심층분석하여 얻은 함의를 통해 전체적인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⁴⁶⁾ 각각의 논문을 분석단위로 하여 주제와 연구방법론을 분석하고, 개별연구의 함의를 추출하며 이들의 공통점을 찾아서 연구의 총합이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오성삼⁴⁷⁾은 메타분석은 다음의 네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첫째, 일련의 연구결과들을 통합시키는 데 체계적이고 강력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둘째, 특정 주제에 관련된 여러 연구결과를 정보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용 가능한 자료들의 여러 결점이 지니는 편견을 통제할 수 있다. 셋째, 모집단의 평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넷째, 복잡한 통계를 사용할 때 연구방법, 연구대상과 범위, 연구조건, 그리고 실험기간 사이의 관계를 동시에 규명할 수 있다.

또한 메타분석은 연구주제에 대한 과거의 문헌고찰을 통해 미래연구 설계에 유용하게 쓰인다는 장점이 있다.⁴⁸⁾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메타분석은 연구자의 주관에 치우치지 않고 어떤 연구대상이나 분야에서

정보를 얻어 문헌을 체계 있게 서목(書目)으로 편성하거나, 이미 편성된 서목에 관하여 연구하는 방법이다. 셋째, 지적소산을 문자의 수단으로 표현하여 담은 물리적 형태를 책의 형태라고 할 때, 그 형태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그것들이 시대에 따라 어떠한 특징과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그중 어떤 것이 초기의 것으로 본문에 오자와 탈자가 없는 좋은 자료인가를 감정하는 일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다루는 연구방법이다(『국어 국문학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8). 필자는 이 중 두 번째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정리하였다.

46) 노정순, 앞의 논문, 45-61쪽; 양유석, 「메타분석에 대한 탐색적 접근」, 『마케팅연구』 제12권 제1호(1997), 99-122쪽; 이종승, 「메타분석 연구결과의 통계적 종합」, 『교육학연구』 제21권 제1호(1983), 83-92쪽; 이지훈, 『사회과학의 메타분석 방법론』(충북대학교출판부, 1993).

47) 오성삼, 『선행연구결과의 통합과 재분석을 위한 메타분석의 이론과 실제』(건국대학교출판부, 2009).

48) J. U. Farley and Lehmann, D. R., *Meta-Analysis in Marketing: Generalization of Response Models*(Lexington, MA: Lexington Books, 1986).

선택된 개념이나 변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 분석이라는 점에서 유용성이 있으며⁴⁹⁾, 하나의 연구결과는 매우 미약하지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시행한 여러 연구들을 통합한 결과는 종합적인 수치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II. 메타분석에 의한 명리학 연구성과의 수치적 해석

1. 분야별 연구성과

명리학 분야별 연구성과의 분석결과는 표3과 같다. 표3에서 보이듯 연구가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각 분야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이것은 명리학의 학문적 관심이 어느 한 곳으로 쏠리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저서의 경우는 명리학 이론과 사상연구가 압도적이다. 이는 술수보다는 근본적인 이해를 돕는 것이 저서 작성에는 다소 쉽고, 저서 중에는 명리학원의 교재도 상당수 있어 술수의 기초가 되는 명리이론에 대한 설명을 해설한 자료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표3-명리학 분야별 연구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저서	계
	석사	박사			
명리학 이론 및 사상연구	81	25	31	787	924
명리학 활용분야	49	10	13	11	83
타 분야와 명리학 결합	37	13	23	3	76
계	167	48	67	801	1,083

2. 타 분야로의 연계

타 분야와 명리학의 결합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49) 김성태. 「내용분석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고찰 및 제언」, 『커뮤니케이션이론』 제1권 제2호(2005), 39-67쪽.

먼저 명리학과 동양의학과와의 결합이다. 김재성(2011)⁵⁰⁾은 적천수(滴天髓) 질병론(疾病論)의 명리동원사상(命醫同源思想)을 동양의학과 상호 비교하여 『적천수』 간지(干支)의 내인적인 분석법과 『황제내경(黃帝內經)』의 '형색(形色)'을 통한 망진(望診)에 의한 외인적인 분석법을 적절하게 결합하면 질병치료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정창근은 『장기별 중증질환 증상의 발현과 명리학적 분류에 관한 연구』(2002)⁵¹⁾를 하였다. 심귀득(2011)⁵²⁾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주역과 명리학의 치유적 기능에 대하여 논하였으며, 그 외에도 대구 한의과대학교에서도 의학과 관련된 다수의 논문이 배출되었다.

이처럼 명리학이 의학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명리학을 이해하면 체질을 알고, 또 이를 질병진단과 발병원인에 대한 기초이론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상담학에서도 많은 연구가 있었다. 김영재의 「역리점복을 경험한 내담자의 체험연구」(2003a)⁵³⁾, 여성 내담자를 위한 상담전략(2003b)⁵⁴⁾, 토속신앙과 상담의 관계(2005)⁵⁵⁾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연구에서 나타나는 점복내담자의 독특한 심리상태는 한국인의 기질적 특성의 일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또 명리학은 그 사람의 성격특성을 알 수 있다. MBTI⁵⁶⁾와 명리학에 관한 이해경(2014)⁵⁷⁾, 정하룡(2010)⁵⁸⁾, 김석란(2007)⁵⁹⁾, 전주영(2012)⁶⁰⁾,

50) 김재성, 『滴天髓 疾病論의 命醫 同源思想에 관한 研究: 東洋醫學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1).

51) 정창근, 『장기별 중증질환 증상의 발현과 명리학적 분류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2).

52) 심귀득, 『「주역」과 명리학의 치유적 기능에 관하여: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동양문화』 제8권(2011), 243-269쪽.

53) 김영재, 「역리점복을 경험한 내담자의 체험연구」, 『인간이해』 제24권(2003a).

54) 김영재, 『점복문화 배경의 여성 내담자를 위한 상담전략의 모색: 근거이론적 접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3b).

55) 장성숙, 「토속신앙과 상담의 관계: 점복문화를 중심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 제17권 제3호(2005).

56)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는 마이어스(I. B. Myers)와 브릭스(K. C. Briggs)가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인 융(C. G. Jung)의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고안한 자기 보고식 성격 유형 검사 도구이다. MBTI는 시행이 쉽고 간편하여 현재까지도 학교나 직장, 군대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최정윤, 『심리검사의 이해』(시그마프레스, 2002); 한국심리학회, 『심리학용어사전』(한국심리학회, 2014).

57) 이해경, 『명리 심성론과 MBTI 유형론 간의 상관성 연구: 〈심뇌지도 모형〉 제안과 관련하여』,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4).

58) 정하룡, 『命理學의 性格類型分類 研究: MBTI類型別 四柱分析을 中心으로』, 동방대학

엄현주(2013)⁶¹)의 논문은 개인이 가진 고유의 성격과 명리학에서 말하는 성격의 차이에 관한 문제를 논한 것이다. 또 성격에 관한 논문으로는 정국용의 『성격특성의 예측을 위한 사주명리학에 관한 연구』(2004)⁶²) 등이 있다. 성격은 소비행동에도 영향을 미쳐, 김철민·이성수(2004)⁶³)는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알고자 하는 행동을 ‘운명소비행동’이라 명명하고 운명소비행동의 이유를 소비자 심리학적 측면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종화(2011)⁶⁴)는 청소년의 성격형성이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이를 명리학의 이론으로 예측하여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치 혹은 역사분야에는 조용헌의 사주명리학과 조선시대의 반란사건에 관한 연구⁶⁵) 등이 있다. 조선시대에 명리학의 명맥이 유지된 것은 점복과 술수기능이 있었고, 택일 등 왕실의 행사 및 의전에 명리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명리학이 세상만사라고 해도 좋을 만큼 많은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연구되는 것은 명리학이 근본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명(命)에 관한 학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다양한 학문과 접목하기 위한 학제 간 연구에 대한 명리학계의 기초이론 정립 등이 시급한 문제라고 하겠다.

분석자료에 나타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명리학 분야의 전문학술지가 없다⁶⁶)는 것이다. 명리학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민속학

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0).

- 59) 김석란, 「사주와 MBTI 성격이론과의 상관관계 연구」,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7).
- 60) 전주영, 「사주명리학의 8가지 성격유형과 MBTI 기능별 8가지 성격유형의 상관연구」,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2).
- 61) 엄현주, 「MBTI 검사와 사주명리학에 의한 성격유형 진단 비교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3).
- 62) 정국용, 『성격특성의 예측을 위한 사주명리학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4).
- 63) 김철민·이성수, 「운명소비행동의 선행요인」, 『소비자광고』 제5권 제1호(2004).
- 64) 이종화, 앞의 논문.
- 65) 조용헌, 「특집: 역과 현대사회; 조선시대의 사주명리학과 반란사건」, 『신종교학회지』 제5권(2001), 66-80쪽.
- 66) 검색사이트(네이버)에서 ‘명리학회’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명리학회’라는 명칭을 내건 사이트가 20여 개나 검색된다. 이 사이트들은 개인(혹은 법인)사업체(co.kr 또는 .com 이거나 cafe 형태로 운영)로서 본래 학회가 갖고 있는 공공적인 취지와는 달리 개인적·영리적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4- 명리학 학술논문이 다수 게재된 학술지

학회지명	운영기관	발표논문 수	비 고
한국정신과학학회지	한국정신과학학회	6	
동양문화연구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4	
동서정신과학	한국동서정신과학회	4	
디지털디자인학연구	한국디지털디자인협의회	4	
선도문화	국제보교육중합대학원대학교 국학연구원	4	
정신문화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3	

관련 학술잡지에 논문이 게재되었다. 현재 2000년대 이후 명리학 관련 논문이 가장 많이 게재된 학회지는 『한국정신과학학회지』(6편), 『동양문화연구』(4편), 『동서정신과학』(4편) 등이다.

발표 시기별로 본 명리학 분야 연구는 표5에 나타내었다. 표5에서 알 수 있듯이 2010년대 들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욱더 활성화되리라 사료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역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⁶⁷⁾일 뿐만 아니라 명리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점차 달라지고 있기 때문⁶⁸⁾이다.

3. 명리학 관련 저서의 연구성과와 문제점

명리학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유입된 후 지금까지 600년이 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와 내용을 제대로 갖춘 명리학 연구서는 1960년대까지는 발간된 적이 거의 없다. 명리학 관련 저서는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801권이 검색된다.

67) 『일요시사』, 2016년 9월 26일자(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975).

68) 『프레시안』, 2016년 11월 8일자(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4533&ref=nav_search).

“명리학이 천년 전에 탄생할 때 그것은 왕조 체제의 존속을 전제로 한 전형적인 우파 학문이었다. 하지만 이 운명의 학문은 민초들의 품에 안기면서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지 않다’는 체제 변혁 사상의 토대가 된다. [...] 그러나 나는 지금-여기의 명리학이 공화정 시대에 걸맞은 이념, 곧 모든 인간은 저마다의 존엄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진리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믿는다. 이런 생각에서 만들어진 개념이 바로 좌파명리학이다.(라디오 팟캐스트 <강현 좌파 명리>를 세상에 내놓는 강현의 변)” 『명리』라는 책은 최근의 불황을 뚫고 3만 부라는 경이적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다. 이처럼 명리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고 자연스럽게 학문분야에도 반영되고 있다.

표5-연도별 명리학 관련 연구 추이

연도	학위논문		학술지	저서	계
	석사	박사			
2000년 이전			3	223	226
2000	1		1	17	19
2001	2		2	22	26
2002			2	24	26
2003	4	1	2	37	44
2004	2	2		30	34
2005	13		1	23	37
2006	10		4	31	45
2007	14		3	33	50
2008	16	1	1	25	43
2009	8	4		44	56
2010	5	6	4	45	60
2011	6	5	9	50	70
2012	18	4	6	41	69
2013	14	8	12	47	81
2014	14	8	6	50	78
2015	20	7	6	36	69
2016	20	2	5	23	50
계	167	48	67	801	1,083

근대에 와서 『사주정설』(1963), 『사주감정법비결집』(1965), 『사주첩경』 6권(1969), 『명리요강』(1974)과 『명리사전』(1978)이 발간되었고, 1990년대에는 『도계실관』(1993)이 발간되어 한국 사주명리학의 이론적인 체계를 갖추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유행처럼 발간된 수많은 명리학 관련 서적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명리서를 명리학을 교육하는 사설기관의 교육자료로서 발간하여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며, 명리학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과시용으로 발간한 경우도 있다.⁶⁹⁾

즉, 상당수 저서가 잡다한 외격들을 두서없이 나열하거나 신살(神殺)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으며, 외국에서 출간된 명리서들을 모방한 수준에

69) 이 경우 여러 저서를 모방하여 발행하므로 내용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즉, 사주명리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의 성과물이라기보다는 단편적인 해설서에 불과한 상황이므로 명리학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한 본격적인 연구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머무르고 있다.⁷⁰⁾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저서를 심층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III. 심층분석에 의한 한국 명리학의 연구동향

메타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황상재·박석철(2004)⁷¹⁾은 국내 인터넷연구의 동향을 분석하면서 분석단위를 개별논문으로 하였다. 또한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을 분석하여 연구동향 등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도 개개의 논문⁷²⁾을 분석단위로 하여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관심 있게 검토하였다.

이 글과 유사한 시도로서 고영택⁷³⁾은 국회도서관에서 검색된 58편의 명리학 관련 석·박사학위논문 중 박사학위논문 5편의 주제를 분석한 결과 명리학의 연원적인 것, 술수통변적인 것 등 일면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철학적 차원에서의 명과 인간존재를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연구주제는 논문 전체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 사안이 될 수 있으며, 연구동향을 밝혀주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또한 이 글의 관심사항 중의 하나인 연구방법의 차별성 부분에서, 김만태(2012)⁷⁴⁾는 박사학위논문에서 사주명리가 우리 민족과 어떻게 접목했으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밝혔다. 즉, 명리의 전래사(傳來史)는 박물관적(博物的)⁷⁵⁾ 방법으로, 현재의 실상은 사료수집 및 해석과 인터뷰법으로⁷⁶⁾, 최종적으로 수집된 자료 등은 서지학적 연구방법으로 정리하였다. 김만태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연구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술수의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맹인점복자들이 그들만의 은어⁷⁷⁾를 사용하고,

70) 김만태, 앞의 논문(2004), 194쪽.

71) 황상재·박석철, 앞의 논문, 68-92쪽.

72) 특히 이 글에서는 박사학위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

73) 고영택, 앞의 논문 6쪽.

74) 김만태, 『한국 사주명리의 활용양상과 인식체계』,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2).

75) 점복술에 종사하는 맹인들을 대상으로 사진, 자료 등 여러 가지 자료를 박물관식으로 수집했다는 것을 박물관적 방법이라고 표현했다.

76) 연구자가 직접 전문가를 대면조사함으로써 실상을 파악하는 연구방법 중 하나이다.

점복술의 상담실태 또한 1인 혹은 소수의 인원이 내담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그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려면 직접 점복술에 종사하는 맹인 점복술사를 대상으로 한 일대일 인터뷰에 의한 대면면접으로만 연구진행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복잡한 연구목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방법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이 논문은 명리학 연구에 다양한 연구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하다. 세부 심층분석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명리학 사상과 근원에 대한 접근

최근 연구된 명리학 사상 연구의 첫 번째 연구경향은 명리서의 해석과 고증 문제이다. 이는 명리학의 문헌과 체계, 인물연구 등 중요한 개별 주제에 접근하면서 명리학의 학술적 정립에 기여하고 있다.

심규철(2003)⁷⁸⁾은 『명리학(命理學의) 연원(淵源)과 이론체계(理論體系)에 관한 연구(研究)』에서 천문 역법과 간지론을 중심으로 명리학의 이론체계를 고찰했다. 문종란(2015)⁷⁹⁾은 『낙록자부주(珞璣子賦註)』의 명리관을 밝히는 연구를 하였으며, 고재민(2015)⁸⁰⁾은 명리고전(命理古典)에 나타난 격국(格局)을 정격(正格)과 변격(變格)으로 분류하여 격(格)의 성립 여부와 사주명리학(四柱命理學)의 용신(用神)관계를 논하였다.

정하용(2013)⁸¹⁾은 괘기역학과 명리학은 모두 인사(人事), 즉 인간의 명(命)과 운(運)을 추단하는 방법론으로 음양(陰陽)의 소식(消息)과 오행(五行)의 생극변화(生剋變化)를 활용한 것이라고 하였다. 장종원(2015)⁸²⁾은 『오행대의』를 찬술한 소길(蕭吉)의 생애와 저술, 『오행대의』의 구성체계와 특징 등을 분석하였다. 『오행대의』에 나타난 오행설의 사유방식은 생극의 순환관계를 설명하는 최소한의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평형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상호 견제와 협조의 구성요소들로서 작용하게 되며, 이것

77) 임안수, 「맹인 점복업자의 은어의 어원과 구성 원리」, 『재활과학연구』 제13권 제1호 (1997).

78) 沈揆喆, 앞의 논문.

79) 문종란, 『珞璣子賦註의 命理觀 研究』,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5).

80) 고재민, 『四柱命理의 宮星과 格局用神論 研究』, 대구한의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81) 정하용, 『卦氣易學과 命理學의 원류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3).

82) 장종원, 『蕭吉의 『五行大義』에 나타난 五行說 研究』,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5).

은 서로 간의 상생·상극의 체계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김학목(2011)⁸³⁾은 천지의 흐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간지이니, 사람을 포함하여 천지의 흐름과 함께하는 만물 역시 상징적인 간지의 원리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인간의 운명을 점치려는 노력은 명리학을 통하여 간지의 상징과 그 변화법칙에 대한 연구로 집중된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이영환의 『임철초의 명리사상과 종격론 연구』(2010)⁸⁴⁾, 문재호의 명리학과 소재학의 『오행과 십간십이지 이론 성립에 관한 연구』(2009)⁸⁵⁾, 유경진의 『명리학 용신 도출의 방법론에 관한 연구』⁸⁶⁾(2009), 조규문의(2009)⁸⁷⁾의 『천강 원수성의 명리사상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그러나 명리서의 해석과 고증은 연구논문이 단순한 명리서의 해설서에 그칠 우려도 있으며, 연구방법도 이에 따라 단순해질 우려가 있다.

두 번째 연구경향은 명리이론에서 파생된 철학적 문제이다. 서준원(2013)⁸⁸⁾은 중화론을 바탕으로 한 명리학적 수양론으로 『주역(周易)』, 『논어(論語)』의 과유불급(過猶不及)과 명리학(命理學)에서 말하는 중화(中和)가 모두 『주역』의 음양론과 연관성이 있으나, 유학에서는 군자가 되기 위해 대의명분(大義名分)을 중시한다면 명리학은 현실지향적인 실리적인 학문이라고 하였다. 고영택⁸⁹⁾은 운명은 ‘격국(格局), 대운(大運), 용신(用神)’의 3요소로 대별되며, ‘격국, 대운, 용신’의 3요소는 명(命)의 이치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격국, 용신, 대운’의 3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를 일러 ‘명(命)이 중화(中和)되었다’라고 하며, 명리에서 명(命)을 이는 것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고자 함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3대 명리서의 진정한 의미는 자연과 사회와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중화된 명(命)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명리학은 그 근본이 명에서 파생된

83) 김학목, 「陰陽五行과 干支의 象徴: 命理學과의 關係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제 42권(2011), 295-322쪽.

84) 이영환, 『임철초의 명리사상과 종격론 연구』,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0).

85) 소재학, 『오행과 십간십이지 이론 성립에 관한 연구』,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9).

86) 유경진, 『명리학 용신 도출의 방법론에 관한 연구』,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8).

87) 조규문, 『천강 원수성의 명리사상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9).

88) 서준원, 『명리학의 중화론 연구』,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3).

89) 고영택, 앞의 논문.

철학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같이 명리서의 해석에서 나아가 철학 문제로 승화된 주제의 연구는 명리학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저변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연구경향은 타 사상 혹은 종교와의 비교연구이다. 신기주(2012)⁹⁰⁾는 명리학 운명론의 철학적 근거로서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유추 비교하였다. 공자의 사상 중 천명(天命)과 가(家)개념은 사람의 사고와 행위를 규정짓는 선진유(先秦儒) 정신의 중심 주제이며, 천(天)관념은 공자의 지명(知命)과 맹자의 입명(立命)정신에 기본 틀을 가지고 있다. 명리학은 운명론을 기반으로 하고 인간의 능동적 의지와 변화를 추구하지만 공자·맹자의 철학은 내면에 구비된 인(仁)과 양지(良知)를 기반으로 한 인간의 도덕적 의지를 통해 개인적 운명과 사회적 삶을 영위해나간다. 따라서 명리학이나 유가적 삶은 인간의 자율적 의지를 중시하는 공통적 요인으로 유가적 특징과 관련을 지어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민영현(2013)⁹¹⁾은 명리학에 대하여 도교의 지평에서 보다 새로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명리는 역(易)과 만나고,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의 도(道)와 만난다. 자연운행의 도를 취하여 그 몸을 지키고 천수를 누릴 것을 요청하는 것이 명리이며 이는 곧 도교의 양생 수련과도 그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교와 명리는 상담학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명리학을 다른 사상이나 종교 등과 비교하는 것 또한 명리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명리학의 지평을 여는 방법 중의 하나일 것이다.

연구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연구 초기라 할 수 있는 2000년대 초반 해도 사주명리에 대한 학문적 접근방식들이 거의 유사하였다고 생각된다. 이 당시의 명리학 논문들은 대체로 기초적인 해석⁹²⁾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신경수의 「당·송대 명리적 삼원론과 주체관점 연구」(2004)⁹³⁾, 정연미(2004)⁹⁴⁾의 서자평 연구 등 명리학의 본질에 더 접근하려

90) 신기주, 「명리학적 운명론(命理學的 運命論)의 유가적 특성고찰(儒家的 特性考察)」, 『동양문화연구』 제11권(2012), 59-83쪽.

91) 민영현, 「도교의 지평에서 본 '命理의 學과 術」, 『도교문화연구』 제38권(2013).

92) 박효순, 「交通事故 日辰의 命理學的 分析: 自動車事故 實例調査를 中心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1); 조규문, 「十干十二支의 命理的 이해」,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1).

93) 신경수, 「당·송대 명리적 삼원론과 주체관점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4).

94) 정연미, 「서자평 낙록사 삼명소식부주의 명리학사적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는 시도들이 나왔다.

사상과 이론으로서 명리학은 2000년 이후 비로소 시작되었으며, 연구 주제 면에서는 명리학의 해석과 고증, 명리이론에서 파생된 철학적 문제, 타 사상 혹은 타 종교와의 비교연구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연구방법론에서는 아직은 서지학적 해석 혹은 비교분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학계는 2000년대 이후 명리학이라는 방대한 학문의 흐름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많은 분야에서 명리학의 본질을 이해하면서 접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접목하려는 학문의 특질에 따라 다양한 연구방법이 시도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된다.

2. 술수로서의 명리학

우리나라의 술수로서의 명리학은 이론 및 사상분야가 조선조 이래 변변한 저서 하나 남기지 못한 것과는 달리 술수는 점복술의 형태로서 명맥을 이어왔다.

김중순(1991)은 『토정비결이란 무엇인가』⁹⁵⁾를 발표하여 토정비결이 어떻게 한국인의 가치관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인류학적인 시각에서 고찰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종교학 등에서 명리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김홍철의 「한국 점복신앙에 관한 연구」(1995)⁹⁶⁾를 비롯하여 특수교육학 분야에서는 한국의 맹인 점복술사를 본격적으로 다룬 임안수의 『한국 맹인 직업사 연구』(1986)⁹⁷⁾가 있었다. 이후 여러 연구들⁹⁸⁾이 있었지만 명리학의 입장에서 검토한 내용은 아니었다.

이 분야에서도 2000년대 이후 의미 있는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2004).

95) 김중순, 『토정비결이란 무엇인가』(세일사, 1991).

96) 김홍철, 「한국 점복신앙에 관한 연구」, 『한국종교사연구』 제3권(1995).

97) 임안수, 『한국 맹인 직업사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86).

98) 임안수, 앞의 논문(1997); 백승종, 『한국의 예언문화사』(푸른역사, 2006); 박성수, 「한국 점복설화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4); 박은애, 「한국 고대의 일자와 일관」,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7).

첫째, 민족문화로서 술수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연구들이다. 이러한 의미의 연구들은 민속학적 입장에서, 국문학의 시각에서 다양하게 연구되기도 했다. 명리학적 입장에서 검토된 것은 김만태의 일련의 연구와 몇몇 연구가 있다. 김만태(2004)는 「명리학의 한국적 수용 및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⁹⁹⁾라는 석사학위논문에서 시작하여 「서거정의 명리관 연구」⁹⁹⁾, 「조선조 명과학(命課學) 시취서(試取書) 『서자평(徐子平)』에 관한 연구」¹⁰⁰⁾를 거쳐 「한국 사주명리의 활용양상과 인식체계」¹⁰¹⁾까지 술수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다양한 연구성과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한국인들은 사주명리를 근묘화실(根苗花實), 즉 자연과 인문의 유기적 결합과 더불어 개인과 집단을 동일시하는 근원적 인식체계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현세중심의 추길(趨吉)로 보며, 또한 양가감정(兩價感情)적¹⁰²⁾으로 운명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논문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연구방법의 다양성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둘째, 술수의 의미와 방법 등에 관한 탐구이다. 구현식¹⁰³⁾은 조선 후기 정조(正祖) 대에 편찬된 『협길통의』를 연구하였다. 정조는 중국의 명리저서인 『협기변방서(協紀辨方書)』와 『상길통서(象吉通書)』를 참조하라고 하였는데, 이 책은 10책으로 묶여 있으며 총 22권으로 편제되어 있다. 『협길통의』는 팔괘(八卦)와 육십사괘(六十四卦)의 생성(生成)과 변화과정(變化過程) 등 역학(易學)의 기본이론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실용적으로 선택서(選擇書)로서의 기능과 더불어 역법서(曆法書)로서의 기능도 있다. 심귀득(2015)¹⁰⁴⁾은 『주역』과 명리학(命理學)의 상호 관련성을 술수역이 아닌 '학문역'의 입장에서 검토하였다. 『주역』의 '시중(時中)'은 '때'에 맞게 '강유적중(剛柔適中)'을 실현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명리학에서의 '때(時)'는 역법(曆法)을 바탕으로 처세의 '때'를 판단하는 것이

99) 김만태, 「서거정의 명리관 연구」, 『국학진흥』 제22권(2013) 267-298쪽.

100) 김만태, 「조선조 命課學 試取書 『徐子平』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 제28권(2012), 266-293쪽.

101) 김만태, 앞의 논문(2012).

102) 명리에 대한 전통적 입장은 첫째, 사람에게는 정해진 운명이 있으며, 둘째, 운명이라는 것이 미리 정해져 있어도 사람들은 알지 못하며, 셋째, 사주팔자가 현실적으로 막강한 위력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운명론적 신앙과 운명개척 의지가 공존하는 것을 김만태는 양가감정적이라고 표현하였다.

103) 구현식, 앞의 논문(2013).

104) 심귀득, 「『주역』과 명리학(命理學)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시중론(時中論) 중심으로」, 『동양문화연구』 제21권(2015), 129-160쪽.

다. 명리학은 『주역』처럼 천인감응(天人感應)과 ‘시중(時中)’을 지향한다는 점은 같지만, 『주역』처럼 수양을 통해 문제점을 예측, 방비, 대처, 개선하는 내용이 없다. 최한주¹⁰⁵⁾는 십신(十神)의 문제를 10개의 개념으로 구성된 십신이 왜 육신(六神) 혹은 육친(六親)이라 불리는가 하는 점과 오행의 생극이론과 음양의 배합이론의 규칙성에 의해 생성되는 10개의 십신 구성요소의 명칭이 왜 비규칙적(非規則的)인가 하는 점을 규명하였다.

셋째, 점복 및 술수환경 및 실태에 관한 연구들이다. 1990년대 김홍철의 「한국점복신앙에 관한 연구」(1995)¹⁰⁶⁾, 특수교육학 쪽의 임안수의 『한국 맹인 직업사 연구』(1986)¹⁰⁷⁾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민속학, 종교학, 교육학 등에서 시작되어 이제는 그 연구의 맥이 명리학계로 넘어왔다. 박숙희(2014)¹⁰⁸⁾는 사주명리는 한국인의 기층 인식체계를 이루는 일부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실증(實證)분석으로 사주에 관한 의식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표인주(2010)¹⁰⁹⁾는 광주지방의 무속인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오늘날 점쟁이는 하나의 직업인으로 인식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들의 점치는 방법은 학습을 통한 점쟁이와 강신을 통한 점쟁이 간에 큰 차이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영력에 의존하여 점치는 경우가 70%의 이상으로 대다수 점쟁이는 영력을 이용하여 점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술수분야의 명리학 연구는 사상이나 근원에 관한 연구보다 훨씬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연구하려는 실체나 주제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고 인접학문의 학술연구 방법을 참조하여 연구가 진행된 것일 수도 있지만, 연구방법의 다양성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술수로서의 명리학에 대하여는 인접학문에서부터 시작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간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첫째, 술수의 의미와

105) 최한주, 『十神概念의 淵源과 性格: 淵海子平을 中心으로』,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5).

106) 김홍철, 「한국 점복신앙에 관한 연구」, 『한국종교사 연구』 제3권(1995).

107) 임안수, 앞의 논문(1986).

108) 박숙희, 「한국인의 사주에 관한 의식 및 영향요인 분석」, 『민족사상』 제8권 제4호(2014), 63-97쪽.

109) 표인주, 「광주 점복(占卜)문화의 실상과 특징」, 『문화재』 제43권 제3호(2010), 4-23쪽.

역할에 관한 연구로 이는 명리학 쪽에서 많이 연구되었고, 둘째, 명리의 술수라는 측면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셋째, 민족문화유산이나 문화로서의 명리학과 점복 및 신태를 조사 연구한 문헌은 인접학문에서 많이 시도되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로서는 명리학 근원에 관한 연구보다는 술수에 관한 연구가 연구의 역사 면에서 수준 높은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향후 연구활성화를 위한 제언

이 메타분석 연구에서 국내의 명리학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발전하였고 성과 또한 적지 않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도 드러났는데, 명리학계의 입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시정해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는 학계가 명리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던 초창기가 아니라 는 점에서 단순한 명리학 해설서 정도 수준의 논문은 탈피해야 한다. 즉 철학적 담론에 이르지 못한 해설서 수준의 논문 작성은 지양해야 한다. 이는 명리학이라는 심오한 학문의 근원을 따라서 연구주제부터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며, 연구방법도 자료 비교식의 단순한 검증방식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술수 부분에서 인터뷰면담조사법, 통계적 방식에 의한 설문조사 실증분석법, 서지학적 연구방법 등 새로운 연구방법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메타분석에서 밝혀졌듯이 수많은 학문분야에서 명리학과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명리학이 인간과 인간의 명(命)을 다루는 학문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계에서는 학제 간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성과와 학술발표의 공간을 명리학계 스스로 창출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명리학계는 이러한 학술적 기반 면에서는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무엇보다도 학회의 발족은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IV. 맺음말

명리학은 인간과 인간의 명(命)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 사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명리학은 중국의 당송시대에 근본 골격이 완성되어 우리나라로 전래되었고, 조선시대에는 국가시험에도 명리학을 채택하였으나 학문으로는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점복술로서 그 명맥을 유지해왔다. 21세기를 앞두고 국내 일부 대학에서 명리학을 주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과가 신설되어 명리학은 학문적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그 이후의 연구성과와 연구동향, 향후과제 등을 메타분석학적 방법으로 검토하였다.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명리”라는 키워드로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저서 등을 망라하여 총 1,886건을 수집하여 얻은 총 1,081건의 자료를 이 글의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기초자료를 Excel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서지학적 분석법에 의해 연구의 기본자료를 얻었고, 이 자료를 토대로 1차 수치해석에 의해 자료권수, 저자, 연구제목, 논문 종류, 발행지, 연구분야, 발행연도별 자료를 얻었다. 2차 심층분석은 개별 단위논문을 심층분석하여 얻은 함의를 비교분석하여 전체적인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수치해석에서는 학위논문은 총 215건으로 석사학위논문 167건, 박사학위논문 48건이었다. 학술지논문은 총 67건이며, 저서는 801건에 달하였다. 학문적 관심은 명리학 본연의 사상과 근원분야, 명리학 술수분야 중 어느 한 곳으로 쏠리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다만 저술 면에서는 거의 다 명리학 이론분야였으며, 1970년대의 초창기 저서들을 제외하고는 발간 목적이 사설기관의 교육자료용이거나 자기과시용으로 발간한 경우 등 내용 면에서 충실하지 못하여 연구성과로 보기는 어려웠다. 명리학은 2000년대 들어서는 많은 분야의 학문과 연계하여 연구되고 있는데, 향후 명리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과의 접목이 바람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제 간 연구에 대비한 명리학계의 기초이론 정립 등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상과 이론으로서 명리학은 2000년대 이후 비로소 자리 잡기 시작하였는데 연구주제는 명리서의 해석과 고증, 명리이론에서 파생된 철학적 문제, 타 사상 혹은 타 종교와의 비교연구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연구방법론에서는 여전히 서지학적 해석 혹은 비교분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학문이 명리학과 접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이들 학문의 특질에 따라 다양한 연구방법이 시도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된다.

술수로서의 명리학에 대해서는 인접 학문인 민속학, 국문학에서 시작하여 그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동향은 민족문화유산이나 문화로서 술수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연구와 술수방법 등에 대한 연구, 점복 및 술수환경에 관해 연구한 문헌이 인접학문에서 많이 시도되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로서는 명리학 근원에 관한 연구보다는 술수에 관한 연구가 연구의 역사 면에서 상대적으로 수준 높은 연구가 많고 연구방법적인 면에서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국내의 명리학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발전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이 못지않게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첫째,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는 명리학의 초창기가 아니기 때문에 명리학 해설서 수준의 논문은 탈피해야 한다. 둘째, 메타분석에서 밝혀졌듯이 수많은 학문분야에서 명리학과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므로 학계에서는 학제 간 연구를 추진할 필요와 더불어 이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학회 창설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학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국내에서 명리학은 이제 겨우 학문으로서 체제가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 연구결과에서 노출된 문제점과 현실을 직시하고 도약해야 할 시기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1. 1차 자료

『明史』 卷 一百二十八, 「列傳」 第十六.

『史記』.

『成宗實錄』.

2. 단행본

김중순, 『토정비결이란 무엇인가』. 세일사, 1991.

김창진, 『점복의 의미와 기능, 한국의 점복』. 지식산업사, 1995.

백승중, 『한국의 예언문화사』. 푸른역사, 2006.

謝松齡 著, 김홍경 · 신하령 공역, 『음양오행이란 무엇인가?』. 연암출판사, 1995.

오성삼, 『선행연구결과의 통합과 재분석을 위한 메타분석의 이론과 실제』. 건국대학교출판부, 2009.

이지훈, 『사회과학의 메타분석 방법론』. 충북대학교출판부, 1993.

조용현, 『조용현의 사주명리학이야기』. RHK Korea출판, 2010.

최정윤, 『심리검사의 이해』. 시그마프레스, 2002.

편집부, 『국어국문학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소, 1998.

표인주, 『민속현상에 나타난 복의 실상과 의미』. 남도민속문화원, 2002.

풍우란 著, 박성규 譯. 『중국철학사상』. 까치글방, 2004.

한국심리학회, 『심리학용어사전』. 한국심리학회, 2014.

徐升 編, 『淵海子平』. 瑞成書局, 1995.

沈孝瞻, 『子平眞詮』. 瑞成書局, 1995.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93.

洪丕謨 · 姜玉珍 編著, 『中國古代算命術』. 上海三聯書店, 2006.

3. 논문

경일남, 「고전소설에 나타난 점복자의 양상과 기능」. 『수행인문학』 제30권 제2호, 2003.

고영택, 『중국 三大 命理書에 나타난 ‘命’과 ‘인간존재’에 대한 철학적 照明』.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고재민, 『四柱命理의 宮星과 格局用神論 研究』. 대구한의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구현식, 『『協吉通義』의 命理 · 風水原理 研究』.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김광진, 「점복설화의 서사적 수용양상」. 『청람어문교육』 제10권, 1993.

- 김동훈·김현정, 「국내 광고효과 연구결과와 메타분석」. 『마케팅연구』 제16권 제3호, 2001.
- 김만태, 「命理學의 韓國의 受容 및 展開過程에 관한 研究」.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_____, 「역서(曆書)류를 통해 본 태일문화의 변화」. 『민속학연구』 제20권, 국립민속박물관, 2007.
- _____, 『한국 사주명리의 활용양상과 인식체계』.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_____, 「조선조 命課學 試取書 『徐子平』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 제28권, 2012.
- _____, 「서거정의 명리관 연구」. 『국학진흥』 제22권, 2013.
- 김성태, 「내용분석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고찰 및 제언」. 『커뮤니케이션이론』 제1권 제2호, 2005.
- 김석란, 「사주와 MBTI 성격이론과의 상관관계 연구」.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김영재, 「역리점복을 경험한 내담자의 체험연구」. 『인간이해』 제24권, 2003a.
- _____, 「점복문화 배경의 여성 내담자를 위한 상담전략의 모색: 근거이론적 접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b.
- 김영진, 「관수고」. 『최정여박사 송수기념 민속어학 논총』, 계명대학교출판부, 1983.
- 김용겸, 「우리나라의 경영학 관련 주요학회지에 게재된 메타분석 연구현황」. 『대한경영학회지』 제23권 제4호, 2010.
- 김재성, 『滴天髓 疾病論의 命醫 同源思想에 관한 研究: 東洋醫學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김정환, 「메타인지·자기 효능감 및 실제적 지능과 성취도 간 인과관계의 경험적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7권 제2호, 2007.
- 김철민·이성수, 「운명소비행동의 선행요인」. 『소비자광고』 제5권 제1호, 2004.
- 김학목, 「陰陽五行과 干支의 象徴: 命理學과의 關係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제42권, 2011.
- 김홍철, 「한국점복신앙에 관한 연구」. 『한국종교사연구』 제3권, 1995.
- 노정순, 「문헌정보학분야에서 메타분석연구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권 제1호, 2008.
- 萬民英, 『三命通會』. 武陵出版有限公司, 2003.
- 문중란, 『珞珠子賦註의 命理觀 研究』.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민영현, 「道敎의 지평에서 본 '命理의 學과 術」. 『도교문화연구』 제38권, 2013.
- 박성수, 「한국 점복설화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박숙희, 「한국인의 사주에 관한 의식 및 영향요인 분석」. 『민족사상』 제8권 제4호 2014.
- 박용식, 「복술설화고」. 『진국어문학』 제9권, 1985.

- 박은애, 「한국 고대의 일자와 일관」.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朴正潤, 「陰陽五行說의 성립과 그 理論의 배경」.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박효순, 「交通事故 日辰의 命理學의 分析: 自動車事故 實例調査를 中心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서준원, 『명리학의 중화론 연구』.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소은선·이인숙, 「고혈압 간호중재의 혈압하강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동서간호학연구지』 제16권 제1호, 2011.
- 소재학, 『오행과 십간십이지 이론 성립에 관한 연구』.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송영신·강문희·김선애, 「노인관련 메타분석 연구의 방법론적 질 평가: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8권 제4호, 2014.
- 宋寅昌, 「周易에 있어서의 '盡性'의 問題」. 『주역연구』 제5집, 2000.
- _____, 『한국 유교지식인의 이상과 실천』. 심산출판사, 2012.
- 신경수, 「당·송대 명리적 삼원론과 주체관점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신기주, 「명리학적 운명론(命理學의 運命論)의 유가적 특성고찰(儒家的 特性考察)」. 『동양문화연구』 제11권, 2012. 59-83쪽.
- 신종원, 「고대일관의 성격」. 『한국민속학』 제12권, 1980.
- 심귀득, 「『주역』과 명리학의 치유적 기능에 관하여: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동양문화』 제8권, 2011, 243-269쪽
- _____, 「『주역』과 명리학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시중론(時中論) 중심으로」. 『동양문화연구』 제21권, 2015.
- 沈揆詰, 『命理學의 淵源과 理論體系에 관한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3.
- 양유석, 「메타분석에 대한 탐색적 접근」. 『마케팅연구』 제12권 제1호, 1997.
- 엄현주, 「MBTI 검사와 사주명리학에 의한 성격유형 진단 비교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유경진, 『명리학 용신 도출의 방법론에 관한 연구』.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이경남, 「전자기록의 장기적 보존을 위한 보존메타데이터 요소 분석」. 『기록학연구』 제14권, 2006, 191-240쪽.
- 이기태, 「점복존의 역사적 실태 연구」. 『한국무속학』 제13권, 2006.
- 이성용·김진호, 「자기교시 중재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특수교육학연구』 제46권 제3호, 2011.
- 이성우, 「정책분석의 패러다임과 연구방법에 대한 메타적 접근」. 『정책평가분석학회보』 제14권 제3호, 2004.

- 이시윤, 『劉伯溫 命理思想의 哲學的 照明』.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이영환, 『임철초의 명리사상과 종격론 연구』.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이종승, 「메타분석 연구결과의 통계적 종합」. 『교육학연구』 제21권 제1호, 1983.
- 이종화, 『성격유형이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범죄에 미치는 영향: 명리학적 성격이론을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이영희·황상재, 「장애인 관련 방송연구의 메타분석」. 『시각장애연구』 제29권 제4호, 2013, 47-75쪽.
- 이혜경, 『명리 심성론과 MBTI 유형론 간의 상관성 연구: 〈심뇌지도 모형〉 제안과 관련하여』.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임안수, 『한국 맹인 직업사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 _____, 「맹인 점복업자의 은어의 어원과 구성 원리」. 『재활과학연구』 제13권 제1호, 1997.
- 임동권, 「삼국시대의 무점속」. 『백산학보』 제3권, 1967.
- _____, 「고려시대의 점복속」. 『이홍직박사 회갑기념 한국사학논총』, 신구문화사, 1969.
- _____, 『한국민속논고』. 집문당, 1971.
- 장성숙, 「토속신앙과 상담의 관계: 점복문화를 중심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 제17권 제3호, 2005.
- 장종원, 『蕭吉의 『五行大義』에 나타난 五行說 研究』.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전주영, 「사주명리학의 8가지 성격유형과 MBTI 기능별 8가지 성격유형의 상관연구」.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정연미, 「서자평 낙록자 삼명소식부주의 명리학사적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정국용, 『성격특성의 예측을 위한 사주명리학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정창근, 『장기별 증증질환 증상의 발현과 명리학적 분류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정하룡, 『命理學의 性格類型分類 研究: MBTI類型別 四柱分析을 中心으로』.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정하용, 『卦氣易學과 命理學의 원류에 關한 研究』.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조규문, 「十干十二支의 命理的 이해」.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_____, 『천강원수성의 명리사상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조용현, 「특집: 역과 현대사회; 조선시대의 사주명리학과 반란사건」. 『신종교학회지』 제5권, 2001.

최한주, 『十神概念의 淵源과 性格: 淵海子平을 中心으로』.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표인주, 「광주 점복(占卜)문화의 실상과 특징」. 『문화재』 제43권 제3호, 2010.
咸賢贊, 『張載 氣哲學의 天人合一의 人性論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황상재·박석철, 「국내인터넷연구의 메타분석: 연구주제와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18권 제2호, 2004.

황선명, 「운세와 운명관의 시대적 추이: 비결과 예언의 현대적 의의」. 『신종교연구』 제6권, 2002.

Glass, Gene V. "Primary, Secondary, and Meta: Analysis of Research," *Educational Researcher*, Vol. 5, No. 10. CA: Sage publications, 1976. pp. 3-8.

Farley, J. U., and Lehmann, D. R., *Meta-Analysis in Marketing: Generalization of Response Models*.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1986.

Field, A. P., "Meta-analysis of correlation coefficients: A Monte Carlo comparison of fixed and random effects methods," *Psychological Methods*, Vol. 6, No. 2. 2001. pp. 161-180.

Wallace, W. I., "Metatheory, Conceptual Standardization, and the Future of Sociology." In G. Ritzer(Ed.), *Metatheorizing*. N.Y.: Sage, 1992.

국 문 초 록

21세기를 앞두고 명리학은 대학의 학제로 편입되어 본격적인 도약의 전기를 맞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에서 “명리”라는 키워드로 1,083건의 자료를 추출하여 1차 수치해석과 2차 개별논문을 심층분석하여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1차 수치해석 결과 논문은 총 282건, 저서는 801건이었다. 여기에서 저서는 사설교육기관의 자료 혹은 개인홍보물이어서 연구성과로 보기는 어려웠다. 2차 심층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론으로서 명리학의 연구는 첫째, 명리서의 해석과 고증, 둘째, 명리학 이론에서 파생된 철학적 문제, 셋째, 타 사상 혹은 타 종교와의 비교연구의 세 가지 연구동향을 보이고 있으며, 방법론에서는 서지학적 해석 혹은 비교분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술수로서의 명리학은 첫째, 민족문화유산으로서 술수, 둘째, 술수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연구, 셋째, 점복 및 술수 실태연구 등 세 가지 연구동향을 보이며, 연구방법 면에서는 사상 연구보다는 다양한 연구방법이 시도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에서 국내의 명리학은 단기간에 상당히 발전하였다는 것이 이 메타분석의 결과이며, 시사점으로는 첫째, 연구주제와 방법의 다양화 모색, 둘째, 학제 간 연구 추진, 셋째, 학회 창설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었다.

투고일 2016. 12. 19.

심사일 2017. 1. 9.

게재 확정일 2017. 2. 27.

주제어(keyword) 명리학(命理, Ming Li), 메타분석(Meta-Ananlysis), 심층분석(Depth-Anal ysis), 술수(術數, Shu Shu, Mystical Calculation)

Abstracts

A Meta-Analytical Study of Korean Ming Li: Focusing on Research Trend by Depth-Analysis of Individual Articles

Hwang, Keum-ok

Before the 21st century, Ming Li(命理) was incorporated into the academic system of the University and the full-fledged leap forward came into being. In this study, 1,083 papers and books for Ming Li were extracted the keyword "Ming Li" using the search system of KERIS (Korean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and the first research was numerical analysis, secondly depth analysis of the individual articles.

The first numerical analysis results were 282 papers and 801 books for Ming Li. But the books are difficult to regard results of the research and they are the personal promotional articles, so the author excludes of this studies. The results of the second individual articles analyses are implied many implications. The theoretical study of Ming Li shows three research trends: First, the interpretation and confirmation of Ming Li, second philosophical problems derived from the theory of Ming Li and third, comparative study with other thought or other religions. The studies of Shu Shu shows also three research trends, first, as a cultural heritage of the nation, second, to study the meaning and role of the Shu Shu and third, to study the actual situation of the Fortune-Telling.

In conclusion, it is found that the domestic theoretical Ming Li has developed considerably in a short period of time as a result of this meta analysis. Also it is necessary to search for diversification of research topic and method, and interdisciplinary research, above all the necessity of establishment of the institute was urgently required.